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 정남진장흥물축제 30일 개막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3년만에 막을 올린다.

올해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란 주제로 펼쳐진다.

30일 개막식에서는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장흥도요시장, 천관산, 제암산, 탐진강 등 아름다운 장흥의 매력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홍진영, 흑(스우파), 호미들&릴킴치 등으로 구성된 축하 공연단은 축제 첫날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30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공예태후 호위행렬을 재현한 역사 테마 퍼레이드로 연출된다.

지상최대 물싸움장은 전문 DJ들이 출연해 신나고 흥이 넘치는 무대를 마련한다.

예양교 상류 수상에서는 수상 워터 챌린지를 운영한다. 대형 에어바

운스를 활용한 수상위터파크를 구성하고, 참가자들이 물 위를 뛰어다니며 장애물 통과에 도전한다.

관광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됐다.

오전 11시 물싸움장에서는 경품을 내건 페달보트 빨리달리기와 물풍선을 받아라 이벤트가 진행된다.

물축제의 핵심 아간 프로그램 워터락풀파티는 더욱 화려해 졌다.

30일과 31일 워터락풀파티는 DJ G-Park(박명수), DJ 주주, DJ 수라, DJ 차니가 뜨거운 여름밤 속으로 안내한다. 8월 5일과 6일은 DJ 김성수(쿨), DJ 허조교, DJ 바비, DJ 이하늘(DJ DOC), 카주쇼타임, DJ 바비가 출연을 앞두고 있다.

축제장 중간에는 특별하게 물축제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루프탑’을 운영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는 루프탑은 1일권 패키지를 구매해 칸막이가 설치된 독립공간을 이용하는 서비스다. /백두연 기자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3년만에 막을 올린다. 올해 물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장흥,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란 주제로 펼쳐진다. /장흥군 제공

진도, 흥연 예방 뮤지컬 공연

진도군이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흥연 예방 뮤지컬 공연을 통한 금연 교육을 실시한다.

뮤지컬 극단 ‘물항기 컴퍼니’를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뮤지컬 흥연 예방 공연은 확실적인 강연 위주의 흥연 예방 교육의 틀을 깨고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뮤지컬 공연으로 흥연의 폐해와 흥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흥연 예방 뮤지컬 ‘힐링병원’ 공연은 흥연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학생들이 흥연을 쉽게 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상황 체험을 통해 금연의 방법을 알려주는 스토리이다.

뮤지컬 ‘힐링병원’은 단순한 무대 위의 뮤지컬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함께 웃고 즐기는 열린 작품으로 흥연 중독으로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들이 ‘흥연 없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해남군, 꿀벌 월동 관리 현장지도 강화

해남군이 꿀벌 폐사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올 1월부터 갑작스럽게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 양봉농가 92농가, 2만3천여군 중 81농가 약 1만2천여군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에서 피해 원인 조사 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합동조사 결과에서는 전년도 가을 높은 일교차로 인한 봉군 약화와 월동 전 응애 방제 미흡으로 인해 약군으로 월동해 피해가 가중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군은 지난 4월 긴급 예비비 3억5천만원을 편성, 꿀벌 입식비를 지원 하는 한편 이번달에는 꿀벌 응애 구제제 등 4종, 8천258개의 방역약품을 지원했다.

특히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및 현장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꿀벌폐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꿀벌 응애는 본격적인 증식기인 7월에 적기 방제를 못하면 봉군을 폐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꿀벌 응애 적기 방제기인 7~8월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응애 방제 요령, 봉군관리 등에 대한 현장지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5일에는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과 연계해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전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봉군 소실 대응 및 병해충 관리방안, 화분매개벌 이용 관리 등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 4개소에 꿀벌 응애 등 병충해 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와 협업체 관내 양봉농가 3개소 별동에 센터 및 가온관을 설치해 월동봉군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고흥군,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작업,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각종 진드기 매개질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질환 발생 다발지역 중심으로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완료하고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 장소는 근래 환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함으로써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는 노즐 손잡이를 당겨서 10초 정도 기피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제외한 피부나 겉옷에 가볍게 분사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법도 알기 쉽게 설명돼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질환은 치료제가 없어 해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고,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피부 노출 최소화, 풀 위에 앉거나 누울 때는 돛자리 이용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등산로, 공원 입구 등 16개소에 분사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이번에 추가 설치된 마을단위 분사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향후 기피제분사기를 확대설치해 군민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보성 조성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 실시

보성군 조성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대장 유래준)는 최근 주거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가정을 찾아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대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 지붕 누수로 집안 내부 도배장판이 곰팡이가 피어 위생상 문제가 있던 대상자의 낡고 오염된 집안의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기동대 활동에 함께 참여한 서진석 조성면장은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 발표

완도군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완도군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최근 개최하고 입상작 12점을 발표했다.

당선작은 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진 관광 기념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민·공예품, 공산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20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총 41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상징성, 시장성, 심미성, 창의성, 작품 완성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대상은 전북 쥘데기와 나무의 질감을 이용해 만든 박영기 씨의 ‘전북 지압과 향릉’이 차지했다. 금상은 이예진 씨의 범바위의 전설이 담

긴 보드게임, 은상은 권혁수 씨의 책갈피 세트, 배종길 씨의 완도군 전복면 쉼표리, 동상은 김지은 씨의 자개 그림 톱, 키링, 헤어 끈, 감미희 씨의 돌레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기념품 3종, 배철지 씨의 전북 펜던트 등이 선정됐다.

대상은 300만 원, 금상 200만 원, 은상 각 100만 원, 동상 각 50만 원, 입선·아이디어상에는 각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박나영 기자

